

SK매직, 사상 첫 '1조 클럽' 입성... 성장·수익 '매직'

〈매출〉

지난해 매출 1조, 영업이익 818억
렌탈 누적계정 200만개 돌파
SK 편입후 4년간 실적 '굉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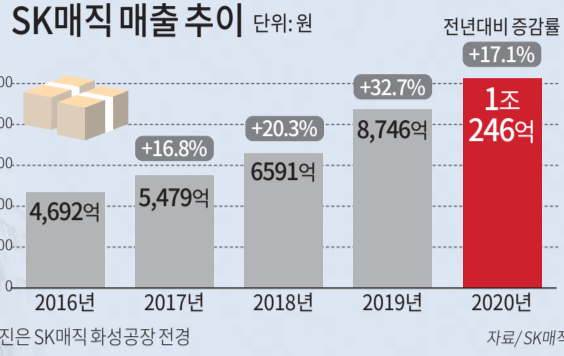
집콕족 늘면서 렌탈 수요 증가
윤요섭 대표 "뉴비즈 발굴 중요"

SK매직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매출 1조원'을 처음 달성
했다.

렌탈 누적계정도 200만을 돌파했다.
특히 2016년 말 SK네트웍스로 편입
되며 SK그룹 계열이 된 이후 4년간 매
출은 2.2배, 영업이익은 3.1배가 늘어나
는 등 시너지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
고 있는 모습이다.

SK매직은 2020년 매출을 집계한 결과
연결 기준으로 1조246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818억원을 올렸
다. SK매직은 2016년 동양매직 시절
4692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SK네트웍스
는 그해 11월 지분을 100% 인수했다.

사명이 바뀐 후 이듬해 5479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SK매직은 2018년 6591
억원, 2019년 8746억원을 각각 올리며
매년 평균 22%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
였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317억원
(2017년)→500억원(2018년)→794억원
(2019년)→818억원(2020년)으로 점점
증가하며 내실은 더욱 탄탄해졌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렌탈 등 전반적인 대면 영
업 활동이 제약을 받은 지난해의 경우
도 정수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등
전통적인 효자 상품들이 대거 판매되며
실적 증가를 이끌었다.

지난해 8월 선보인 자가관리형 '스스
로 직수 정수기'의 경우 매달 1만대 이
상 팔렸고, 얼음정수기와 공기청정기도
'홈카페', '집콕족'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 가량 판매가 늘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재택 근무가
늘면서 '홈룩' 시장 확대로 식기세척기
는 전년 동기 대비 250%, 전기레인지
는 270% 판매가 각각 늘었다.

SK매직은 지난해 트리플케어 식기
세척기(1월), 터치온 플러스 식기세척
기(6월) 등의 신제품을 차례로 출시하
며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도 했다.

SK매직 관계자는 "고객들과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불만사항 등을 해소
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정수
기, 식기세척기, 전기레인지, 오븐 등
주력 제품들이 경쟁사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상위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
면서 "투자업계에서도 회사의 성장과
가치를 인정해 신용등급 전망이 기존
'A0 안정'에서 'A0 긍정'으로 상향되
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SK매직은 올해부터 윤
요섭 대표 체제로 수장이 바뀌었다.

SK네트웍스 전신인 ㈜선경으로 입사
한 윤 대표는 SK네트웍스에서 금융팀
장, 재무실장 등을 거쳐 2019년 12월부터

SK매직 경영전략본부장을 역임했다.

윤 대표는 지난달 취임을 겸한 신년
사에서 "SK매직만의 경쟁력을 확보하
기 위해선 뉴 비즈니스 모델 및 아이템
제품 발굴, ESG와 글로벌 등 새로운 성
장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품 품질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SK매직은 올해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및 성장 모멘텀 발굴을 위
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차
별화 제품 및 신규 아이템 개발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추진 ▲글로벌
비즈니스 성과 창출 등을 핵심 과제로
정했다.

윤 대표는 "SK매직의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장의 줄을
깨고 제품 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고객가치
를 최우선으로 연구개발 및 품질, 고객
만족(CS),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기 위
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잇단 규제에 기업들 시름 "고용 축소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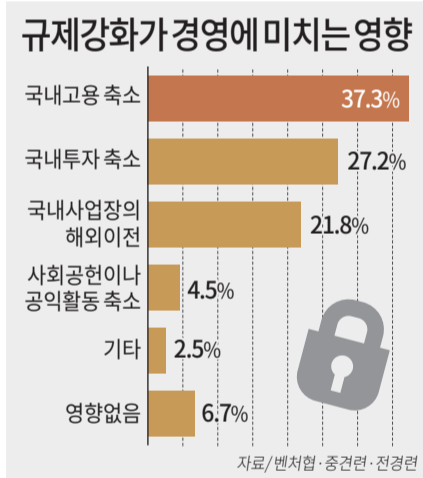
290개사 기업규제 인식조사
10곳 중 7곳 기업 옥죄기 '불만'
22% "사업장 해외 이전 고민"

기업 경영을 추가로 옥죄는 '규제 3
법' 등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으신 가
운데 기업 10곳 중 4곳은 '고용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곳
중 2곳은 공장 등 사업장을 해외로 옮기
는 것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기업 10곳 중 7곳은 정부와 정치
권의 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불
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벤처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
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벤처기업
174곳, 중견기업 28곳, 대기업 28곳 등
총 230곳을 대상으로 '최근의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해 15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타났다.

세계에서 정의한 '기업규제 3법'이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으로
여기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
위원 분리 선출 ▲대주주의결권 3% 제
한 ▲지주회사 지분요건 강화 ▲일감몰
아주기 대상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의 기업규제 강



화가 회사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란 질문에 37.3%는 '국내 고용 축
소'라고 답했다.

또 '공장·법인 등 국내 사업장 해외
이전'은 21.8%, '국내 투자 축소'는
27.2%였다.

기업 규제 강화로 86.3%의 기업이 고
용·투자 축소, 사업장 해외 이전 등 어
떤 식으로든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44.3%는 '매우 불
만', 25.2%는 '불만'이라고 답해 응답기

업의 69.5%가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규모별 '불만족' (불만+매우 불
만) 비율은 대기업이 96.5%로 가장 높
았다. 이외에 중견기업(82.2%), 벤처기
업(63.2%) 순이었다.

불만족 사유로는 ▲전반적 제도적 환
경 악화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
(59.4%)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
로 보는 반기업 정서 조장(31.9%) ▲신
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3.8%) 등을 꼽았다.

또 외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산업규
제 강도에 대해선 43%가 '매우 강하
다', 34.3%가 '강하다'고 답했다. 10곳
중 8곳 가까운 기업이 '강하다'고 판단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
해 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는 절반이 넘는 56.1%의 기업이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이라고
답했다.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
(21.7%)와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
별 규제 완화' (19.1%)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

홈쇼핑, 현금 6000만원 등 경품 이벤트

내달 1일까지 추첨 행사

홈쇼핑이 봄 맞이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홈쇼핑은 15일부터 오는 3월1일까
지 렌탈·상조·광고·여행 등 무형카테
고리 방송에서 상담신청 완료 및 결제
완료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추첨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품은 500만원씩 12명에게 총 6000
만원의 현금 외에도 신세계 상품권, 삼
성 인버터 건조기(10명) 등으로 4월 중
추첨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
해 첫 날인 15일 오후 2시30분 'VOVO
최고급형 비데' 렌탈 방송에 이어 17일
에는 '대림 전기오토바이', 21일 오후 7
시 25분에는 상조 상품인 '대명아임레
디' 등을 각각 선보인다. /김승호 기자

여경협, 여성기업 경영 전략 수립 돕는다

'여성 CEO 컨퍼런스' 참가자 모집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여성기업들
의 경영을 돕기 위해 나섰다.

여경협은 '2021년 여성 CEO 경영력
신 컨퍼런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5
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19일까지로 여
성 CEO 및 여성기업 임직원, 여성 예비
창업자 등 500명이다. 참가비는 없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여경협
이 주관하는 이 컨퍼런스는 전국 여성

CEO들이 코로나 이후 생산, 유통, 마
케팅, 판매 등 전 분야에 걸쳐 변화된 산
업구조에 대응해 올해 경영환경 변화
및 경영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
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다만 모든 일정은 비대면 온라인 교
육으로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주제별 라이브 강의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등록 인원이 초과할 경우 조
기에 마감 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발명진흥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접수

중소·중견기업 대상 내달 5일까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오는 3
월5일까지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
으로 '2021 제1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
업 인증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제 신청 방법 및 평가 기준 안내를 위한

사전 온라인 설명회도 오는 18~19일 이
틀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종업원의 발명을 회사가 승계한 경우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 기업을
정부가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다. 인증기업에게는 특허청과 중소
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는 일부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가점을 준다. 또한, 특
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자
격 부여 및 4~6년 분의 연차등록료
20% 추가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신청자격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
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이면
가능하다.

인증서 발급은 '직무발명보상 우수
기업 인증제' 신청 후 발명진흥회의 심
의를 거쳐 진행된다.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상담사례집' 발간

노무 등 소기업·소상공인 사례 담아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의 주요 경영애로 사례를 모은 '2021년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상담사례집'을 발
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상담사례집은 '노란우산 경영지원
단'의 법률, 노무, 세무 등 8개 전문지식
분야 전문가 330명을 통해 상담받은 소
기업·소상공인의 주요 경영애로 상담사

례를 바탕으로 현장감 있게 구성했다.

특히, 사업도중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 ▲근로계약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등 200여개의 다양
한 상담사례와 판례를 확인할 수 있다.

상담사례집은 노란우산 홈페이지에
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경
영지원단 이용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
인은 전화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